

“내 아들 어디에”...애끓는 모정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 지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30대 남성의 어머니가 현지에서 직접 아들을 수소문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참석차 팔루에 머물렀던 재인도네시아 한인 패러글라이딩 협회 관계자 A씨는 팔루 북쪽 80km 지점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진 발생 10여 분 전 외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나, 팔루 루타이라 SIS 알-주프리 공항의 민항기 운항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니 강진 후 연락두절 한국인 어머니, 외아들 수소문 통신두절 혼란 속 잘못된 정보 속옷차림 현장 방문도

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군 수송기에 탈 수 있었지만, 기체 결함으로 거듭 회항하는 바람에 이틀이 지난 2일 아침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은 A씨가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팔루 시내 8층 호텔의 잔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씨의 어머니도 팔루에 도착하자마자 문제의 호텔로 향했다. 이 호텔에선 2일 하루 동안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 관계자는 “처음에는 잔해 아래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전과 통신두절의 혼란 속에 전달된 잘못된 정보들도 A씨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A씨의 어머니는 팔루 현지에서 한국인이 속옷 차림으로 호텔을 뛰쳐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소문 끝에 소문의 시작점을 찾았으나 와전된 이야기임을 확인했다.

모 미국계 매체 현지 지사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지진 잔해에 발이 걸려 손을 다치는 바람에 현지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A씨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3일 현재 팔루 시내 병원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의식불명인 환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A씨 어머니는 이날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으나, 구조현장에만 계속 있기보다는 나가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아들 A씨가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했지만 자주 귀국해 부모를 정겹다면서 “올해 3~4월에도 집에 왔고, 10월에도 귀국할 예정이었는데...”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노벨 재단 “아웅산 수치 행동은 유감”

“평화상은 박탈 않겠다”

노벨 재단이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하고 두둔한 아웅산 수치(사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노벨평화상을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의 라르스 하이켄스텐 사무총장은 전날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하이켄스텐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얀마에서 수치가 미얀마에서 한 일들이 많은 의문을 낳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 가치인 인권을 지지한다”며 “따라서 그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더라도 노벨상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려면 노벨상 수상자의 사후 공적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우



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노벨상 수상자가 사후에 저지르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군부가 인종학살과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고위장성 6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 /연합뉴스

집안 가방 속 전자담배 발화 터키 항공기 비상착륙

승객의 집 안에 전자담배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오후 터키 이스탄불 사비하코친국제공항을 이륙해 프랑스 파리를 향해 출발한 터키 페가수스항공 PC1135편 보잉 737-800 항공기가 이륙 약 1시간 10분 후 기내 화재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비상착륙 후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했고, 다친 승객은 없다고 페가수스항공은 설명했다. 자세한 탑승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페가수스항공은 성명에서 승객의 가방 속 전자담배가 화재 원인이며 엔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터키 항공뉴스 전문매체 에어포트하베르는 화물칸에서 화재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 청사에 독극물 소포 발견

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보호복을 입은 국방부 직원들이 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 국방부 청사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 '리신' 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2개 이상 발견됐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날 밝혔다. 문제의 소포는 지난 1일 국방부 직원 앞으로 부쳐졌으나, 청사 검색 센터에서 발견해 걸러냈다. /연합뉴스

日 조사용 포획 고래고기 ‘판매’ 국제기구 “상업 목적” 시정권고

일본이 조사용 목적으로 보리고래를 포획하는데 대해 국제규제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협약의 상설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설위원회는 일본은 조사 목적의 포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워싱턴협약 위반 행위인 ‘상업 목적’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 포획이 학술 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협약은 멸종위기 가능성이 높은 해양 야생 동식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업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보리고래는 과학연구 목적으로 포획되고 있지만 이후 일본 내에서 판매돼 수익이 관련 비용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최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시정 조치를 보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베트남 롯데마트에 ‘짜퉁 한국매장’ 입점 빈축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마트에 짜퉁 한국매장인 ‘무무소’(MUMUSO)가 입점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롯데마트베트남은 지난해 8월께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의 남사이공점 2층에 무무소가 입점했다고 3일 밝혔다.

‘무공생활’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영문 ‘KOREA’ 나 ‘Kr’ 을 함께 쓰는 무무소는 어설픈 한국어가 적힌 중국산 저가제품을 대거 팔다가 베트남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무소가 베트남에서 판매한 2천273가지 상품을 조사한 결과 99.3%인 2천257가지가 중국에서 수입

했고, 한국에서 수입한 것은 전혀 없었다.

또 ‘MUMUSO.kr’ 이라는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사용권이 ‘무무소 상하이’ 에 위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7월 ‘무무소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베트남 관계자는 “사이공점의 매장 입점을 담당할 베트남 직원이 별다른 생각 없이 무무소를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계약 기간(2년)이 끝나면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우디 전기차에 삼성디스플레이 OLED 탑재

사이드미러 대신 작은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

삼성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아우디가 최근 선보인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e-트론(Tron)에 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e-트론은 아우디가 처음으로 양산

판매하는 순수 전기차로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특히 옵션으로 제공되는 ‘버추얼 익스테리어 미러’ 는 기존 사이드미러 대신 작은 ‘사이드 뷰 카메라’ 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옵션으로 운전자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차량 내 전면유리 옆기둥(A 필러)과 도어 사이에 설치된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OLED 디스플레이는 차량 대시보드 좌우에 각각 한 대씩 장착돼 카메라와 함께 기존의 사이드미러 기능을 대신한다.

또 터치 센서가 내장돼 스마트폰을 조작하듯이 터치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아우디는 버추얼 익스테리어 미러에 대해 ‘일반적인 사이드미러보다 사각지대 없이 더욱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흐린 날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더 원활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고 고속도로 주행·회전·주차 등 각각의 운전상황에 적합한 ‘뷰 모드’ 를 제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h3>상가 및 주택매매(수익형)</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무지구 6층 상가점 주택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23평 (모든업종가능), (주택가능) 공실 없음 (임대 항시대기) <p>보5백 월 40만</p> <p>시세 1억3천 매가 8천만</p> <p>010-7384-7800 010-6670-9800</p>	<h3>원룸 매매</h3> <p>신축원룸 산정공원 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60평 건 117평 1층 상가1칸 (2층~4층 원룸 10개, 투룸4개) 매가 8억 (보 1,800만 월 560만) <p>① 월곡동 (하남농협 1분) (코너) (1층상가1칸) 2층~3층(원룸10개) 4층 (주택,32평), 월세 510만 용(2억5천만) ▶ 매가 8억 6천만</p> <p>② 월곡동 능원 2분 원룸 - 16개 월수익 510만 (보1천500만, 용2억5천) ▶ 매가 8억 4천만</p> <p>③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총 14개 보7천만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p> <p>062-959-9860 010-6670-9800</p>	<h3>대신경매 법률경매</h3> <p>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9월 개강 선착순 모집 ★</p> <h4>상가빌딩 (추천)</h4> <p>1) 남구 송하동 (5층 상가건물) 토 138평 건491평 광주여대 2분 (교회, 본사건물 추천)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5천</p> <p>2)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토 101평 건220평 1층 (커피숍) 대단위 아파트 내 위치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4천</p> <h4>근린상가 / 빌라 / 숙박시설</h4> <p>①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6평 건427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5억7천</p> <p>②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6억5천</p> <p>③ 북구 문흥동 (아파트상가 2층) (13평) ▶ 감평가 7천7백 → 최저가 4천3백</p> <p>④ 광산구 우산동 (클럽비수빌 1층)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p> <p>⑤ 북구 중흥동 (씨너스전대 2층)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5천</p> <h4>A.P.T. 주택</h4> <p>①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45평)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p> <p>② 서구 치평동 중흥아파트(33평)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p> <p>③ 광산구 신정동 신가부영(32평) ▶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p> <p>④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24평) ▶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1억5천7백</p> <p>⑤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33(33평) ▶ 시세 1억7천 → 감평가 1억2천</p> <h4>공장/기타</h4> <p>① 북구 대촌동 (공장) 토 500평, 건575평 ▶ 시세 11억7천 → 최저가 8억2천</p> <p>②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 2,199평 건1,970평 ▶ 시세 46억 → 최저가 46억</p> <p>③ 강진군 칠량 (공장) 토1,338평 건559평 ▶ 감평가 15억 → 최저가 12억</p> <p>④ 광산구 우산동 (클럽비수빌 1층)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p> <p>⑤ 북구 용봉동 (12층 중 12층)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5천8백</p> <p>010-7384-7800 010-6670-9800</p>
--	---	---